

## 주소정보 활용한,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 찾습니다

- 9월 30일까지 '제5회 주소기반 생활·행정 혁신과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' 개최
- 주소정보를 이용한 국민 안전, 생활 편리, 산업 창출 서비스 발굴

- 행정안전부는 6월 21일(수)부터 9월 30일(토)까지 100일간 '제5회 주소기반 생활·행정 서비스 혁신과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공모전은 주소정보 신산업 모델을 만들고, 새로운 주소정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공모주제는 ▲주소정보를 이용한 생활 편리 서비스, ▲주소정보와 연계한 국민 안전 서비스, ▲주소기반의 신산업 모델, ▲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.
-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공모안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, 효율성, 창의성, 내용 구성 등을 심사하여 5편을 선정하고 10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.
-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정보 누리집(juso.go.kr)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(lx.or.kr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(juso@lx.or.kr)으로 제출하면 된다.
- 선정된 5개의 아이디어는 11월 개최 예정인 '세계주소 콘퍼런스'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.
- 행정안전부는 채택된 공모안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, 주소정보 기반 관련 신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.

- 한편,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20개의 주소기반 아이디어는 ‘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’, ‘주소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계획’ 등에 활용되어 주소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.
- 2019년 대상으로 선정된 ‘도로명표지판 사물인터넷 센서화 방안’과 2022년 최우수로 선정된 ‘사물주소를 활용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방안’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.
-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“주소기반 서비스는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”라며, “주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정책을 위한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서기관	고종신 (044-205-3552)



## □ 개최목적

- 공모전을 통한 주소정보 관련 정책 아이디어 발굴로 고도화되는 주소체계의 국민 이해도 제고
- 주소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, 산업 모델 제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

## □ 공모개요

- (주최·주관) 행정안전부, 한국국토정보공사(LX)
- (공모 기간) '23. 6. 21. ~ 9. 30.(100일)
- (참가 자격) 국민 누구나(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가)
- (공모 주제) 주소기반 생활·행정서비스 혁신 및 산업 모델 발굴
  - ① 주소정보를 활용한 생활 편리 서비스 아이디어
  - ② 주소정보와 연계된 국민 안전 서비스 아이디어
  - ③ 주소정보와 관련된 신산업 모델 아이디어
  - ④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·활성화 등에 관한 아이디어
- (응모 방법) 주소정보 누리집(juso.go.kr) 또는 LX 누리집(lx.or.kr)에서 신청서·과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, 전자우편(juso@lx.or.kr)으로 제출

## □ 심사 및 포상

- (심사) 서면 심사 5편 선정(10월 20일 발표) 후 발표 심사로 순위 결정(11월 예정)
- (포상) 대상 1편, 최우수 1편, 우수 1편, 장려 2편

구 분	상금(만원)	훈 격	비 고
계	410		5편
대상	200	행정안전부장관	1편
최우수	100	행정안전부장관	1편
우수	50	행정안전부장관	1편
장려	30	한국국토정보공사장	2편